

6강. 룯의 혼인을 준비하는 나오미(3:1-13)

I. 오늘의 포인트

1. 나오미가 룯에게 결혼을 준비케 하는 내용을 알아본다
2. 룯이 나오미의 계획에 따라 보아스에게 결혼을 제안하는 의미를 알아본다.
3. 룯의 제안에 대한 보아스의 반응을 알아본다

II. 본 론

A. 나오미의 제안과 룯의 순종

- 1) 나오미가 룯의 안식처를 찾아 주려는 마음

: 나오미가 결혼중매자가 되겠다고 선언함.

‘룯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‘ (룯 3:1)

: 기업 무를 자를 생각하는 나오미

‘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무를 자 중의 하나이니라 하니라’(룯2:20)

- 2) 가족 보호자로서(고엘) 구약의 여러 내용들

: 가족을 죽인 자에게 복수하는 것

‘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’(민수기 35:21)

: 빛을 대신 갚아주고 가족의 재산을 돌려주는 것

‘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네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무를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무를 것이요 ’(레 25:23-25)

: 종으로 팔린 친족을 속량해 주는 것

‘ 네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.....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 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....’(레25:47-48)

: 특별한 결혼으로서 형사취수(兄死娶嫂) 제도

형의 가문을 이어주기 위해 동생이 죽은 형의 형수와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 형의 가문을 잇도록 하는 제도

‘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 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잇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‘(신25:5=6)

3) 땅을 무르는 내용과 형사취수 제도를 결합된 내용으로 소개하는 나오미

: 나오미는 보아스가 결혼할 책임이 있다고 말함으로 롯을 설득함

‘네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...’(롯 3:2)

4) 롯을 준비시키는 나오미의 과감한 계획

: 롯에게 성관계까지 맺기 위한 준비를 명함(해석의 여지가 있음)

‘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**발치 이불을 들고**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니 ‘(롯3:3-4)

: 구약에서 발은 생식기를 가리키는 완곡한 어법이지만 여기는 발치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 발보다는 조금 더 넓은 부분으로 다리 부분으로 번역할 수도 있다.

그래서 다리 부분을 치우고 그 옆에 누워있으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고 한다.

이런 차원에서 발치 이불이라고 번역했지만 원어에는 이불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음

‘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**그의 발에 갖다 대며**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,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 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**할례** 때문이었더라’(출4:25)

‘그 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 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**발은**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’(단10:5-6)

: 의복을 갈아 입는다는 것은 결혼에 대한 담대한 표현으로 과부의 상복을 벗음으로 결혼의 가능성을 알리는 표시

: 롯이 시어머니의 계획에 따르기로 동의하고 실행에 옮김

‘ 롯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 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’(룻3:5-6)

: 롯의 이러한 행동은 어떻게 비추어 질 것인가?

: 롯기의 저자는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성관계의 묘사들을 다 동일하면서도 확증을 줄 수 있는 분명한 단어를 쓰지 않음으로 일이 앞으로 다르게 진행될 가능성을 열어놓음

B. 롯이 결혼 제안

1) 보아스에게 청혼하는 이유를 분명히 밝힘

: 밭지에 누운 롯을 발견한 보아스의 질문과 롯의 답변

‘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롯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찢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무를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’ (룻3:9)

: 롯이 의도하는 바를 보아스가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표현하고 그 결과는 보아스의 손에 맡김.

2) 보아스의 질문에 대한 롯의 대답에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됨

: 하나님의 날개아래 피하러 온자라고 당신이 칭찬하지 않았습니까?
이제 그 날개가 되어주소서!

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’(룻2:12)

‘ 나는 당신의 여종 롯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찢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’(룻3:9)
새번역 참조: 어른의 종 롯입니다. 어른의 품에 이 종을 안아 주십시오. 어른이야말로 집안 어른으로서 저를 맡아야 할 분이십니다

: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비의 법이 있지 않습니까? 하나님의 법을 실행하소서!

‘이는 당신이 기업을 무를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’ (룻3:9)

3) 천박하고 수치감 느껴질 수 있는 오해의 여지가 있는 장면이 신앙적 담대함의 시도였다

: 보아스가 롯에게 답변하는 말을 통하여 롯이 정숙한 여자였음을 알 수 있다.

‘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

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'(룻3:11)

: 룻이 한 말이 오히려 신앙적이라고 옳다는 것을 보아스가 인정해 주는 말
내가 네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

C. 보아스의 축복(이전 헤세드보다 더 강력한 헤세드)

1) 보아스는 자신에게 말하는 룻의 분명한 동기를 인정함

: 자신이 그럴 의무가 있는 자임을 인정함

‘참으로 나는 기업을 무를 자이나’(룻3:12)

세번역 참조: 내가 집안 간으로서 그대를 말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소!

2) 보아스는 지금 결혼 요청하는 이 상황이 오히려 룻을 더 칭찬하는 것으로 인정함

: 사랑이나(젊은 남자들), 돈을 보고 재혼하지 않고 오직 기업무르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것으로 인정함

‘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’ (룻3:10)

: 하나님의 백성들도 잘 하지 못하는 ‘죽은 자의 가문을 이어가려는 모습’의 헤세드의 거룩한 목적을 이방여인인 룻이 시도하려는 것을 놀라운 일로 평가함.

3) 보아스의 축복의 선언

: 자신의 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자신의 계획을 약속으로 선언함

‘.....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’(룻3:13)

III. 적 용

1.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본의는 있지만 혹시 오해를 받지 않을까? 두려워 포기하는 일은 없는가?
2. 보아스가 진심으로 룻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이유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나는가? 나의 삶도 신앙인의 눈에 볼 때 칭찬 받을 수 있을까?
3. 오늘날 크리스찬의 삶이 기업 무를 자로서의 삶의 방식을 어떻게 나타나게 할까?